

대한양계협회소식



육계수매 및 경영자금 상환연장 요청

본회에서는 지난 15일자로 육계수매 및 축산 경영자금 상환연장 요청을 농림부에 전달하였다.

최근 발생된 시와 관련하여 닭고기 및 계란소비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산지 육계값과 계란값이 생산비를 크게 밀도는 등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본회에서는 지난 시 발생 이전의 입추된 물량을 대상으로 생산비선에서 수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아울러 각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지 지원되고 있는 축산 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간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계란 우수성 홍보

라디오 광고 한달간 더 연장

소비촉진을 위해 산란계 임의자조금으로 제작된 계란 라디오 광고가 신년 1월까지 연장된다. 이번 라디오 광고는 계란의 우수성을 주제로 어린이 두뇌발달과 온가족 먹거리를 주내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라디오를 통해 광고되어 왔었다. 이외에도 홍보물 배포, TV PPL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MBC 표준FM(95.9MHz) 16:00~18:00
-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 AI, 한미FTA 등 현안논의



지난 20일 본회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시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한미 FTA협상 진행상황, 닭경제능력 검정사업 방향, 회비 및 정관개정(안) 의견수렴결과 등이 보고 되었다.

협의사항으로는 오정길 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신임이사 선임(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검토 등이 다루어졌다.

이사회는 27일 개최기로 하였으며, 이날 오후 회장단은 육계인 대표들과 함께 농림부를 방문,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전하며 수매를 촉구하였다.

종계·종란수입조절위원회 2007년 원종계 수입물량 46만1천수



지난 7일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종란수입조절위원회가 개최되어 종계 적정수수검토와 시장 접근물량 배정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4년간 육용원종계 수입수수는 평균 12만수/년, 산란원종계는 평균 7천수/년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도 종계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업계 별로 신청량이 기본시장접근물량인 461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비율에 의거 배정하여 과잉신청을 제지할 것을 협의하였다.

검정위원회 올해 경제능력검정사업 목표대비 초과 달성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6회 육용검정계 최종성적, 제39회 산란검정계 최종성과 제 40회 산란검정계 중간성적에 대해 심의 및 평가를 가졌다. 올해 닭경제능력검정사업은 육용계는 2005년도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고, 산란계는 난중과 체중을 제외하고 모두 달



성된 것을 보고하였다. 기타사항으로 준육용계의 검정기간에 대해 출하시 체중을 고려하여 12주에서 10주로 변경기로 하였다.

종계DB추진협의회 1월중 자료 공개 예정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 2차 종계DB추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11월에 개최된 전국종계·부화인대회에서 종계DB농가교육을 병행 실시하면서 종계부화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실시되었다.

종계DB구축사업으로 출장방문을 통해 전국 종계장을 파악한 결과 395개소로 잠정파악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육용종계의 생산성을 하락되었고 2006년 2/4분기 종계입식수수가 전년 동기간보다 10.6% 감소하여 육용실용계의 생산감소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익산지역의 종계 20여 만수가 살처분 되었고 모부화장의 잠정폐쇄로 인해 육용실용계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육용실용계의 부족현상은 올해 설날 까지 어이질 것으로 예상보고 하였다.

산란종계는 2006년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산란종계의 수입물량과 국내 종계 입식수수가 입식되어 전년대비 24.1% 증가함에 따라 2007년도 2/4분기 이후 산란실용계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종계DB자료는 종계생산성(육성율, 산란율) 현향양계관련, 향후 병아리 예상 생산량과 월별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전문지에 2006년 1월중에 공개할 것을 의결하였다.

본회 및 가금관련 7개 단체 AI 배상책임보험 재가입



닭고기·오리고기를 먹고 사망할 경우 20억원을 주는 AI 배상책임보험이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금수급안정위원회와 본회를 비롯한 가금관련단체가 7:3의 비율로 보험금을 분담해 재가입기로 했다.

본회를 비롯한 7개 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농협양계관련조합장

협의회, 전국토종닭협회,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한국계육협회)로 구성된 AI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일 계육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전북 익산의 AI발생으로 인한 전국 방역상항 점검과 닭고기 등 가금류에 대한 소비촉진 방안은 물론 보험 재가입건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보험금은 계육협회가 450만원, 치킨유통협회가 210만원, 오리협회가 150만원, 농협이 150만원, 양계협회가 90만원을 각각 부담기로 하였다.

본회 및 가금관련 단체 AI 극복을 위한 가금산물 소비촉진 행사 실시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AI가 발생됨에 따라 지난 12일 동대문 두산타워 앞 광장에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가금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가금관련단체장들은 우리양계농가 안아주기(hug) 행사와 함께 가금산물을 안심하고 먹자는 뜻으로 AI배상책임보험 20억원 가입기념식을 진행하였다. 닭고기와 계란 등의 요리전시·시식회로 행사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영양학적으로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행사 후 가금수급안정위원 및 행사 관련참석자들은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비촉진 행사의 의미를 더 했다.

본회 최준구 회장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수매 촉구



지난 15일 최준구 회장은 본회 회의실에서 KBS 9시 뉴스 이수연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최준구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시발생으로 인해 양계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계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소비가 감소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당국의 조속한 수매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시 발생시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안양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만 국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가축위생시험소나 지역대학과 협조해 시 검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동 지회장 토론회 참석 시중 유통되는 닭고기 100% 안전 강조

지난 11월 30일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충북도 지회장은 KBS TV 생방송 포커스전북21에 출연해 '양계업계 회생방안 없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준동 지회장은 "75°C에서 5분 이상 익히면 안전하다는 말 자체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에 생고기 자체도 100%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계농가들은 이번 HPAI 발생으로 인해 닭값이 원가의 절반도 못 비치는 가격까지 폭락하고 상인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있어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양계농가들의 재활을 위해서라도 생산원가만이라도 보장해 주기를 호소했다.

한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를 요구했으며 정부의 방역과 수매 가격에 대해서도 농가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피력했다.

(지부 · 지회소식)

광주채란지부 양계산물 소비홍보 실시

광주채란지부(지부장 이만형)은 소비자에게 양계산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1일 본회에서 제작한 계란·닭고기 안전성 홍보 전단지

이용하여 안정성 홍보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광주채란지부는 광주지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안전성 홍보지를 삽입시키는 방법을 이용,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성 홍보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전북도지회
계란 소비촉진 행사**

시 이후 침체된 양계산물의 소비 촉진 차원으로 전북도지회(지회장 박옥룡)와 계란유통협회 전북지부(지부장 박운이)가 공동으로 지난 10일 군산월명체육관 앞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가졌다.

이날 800여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계란 200판, 소비홍보물 등을 이날 방문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군산시청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앞으로도 군산지역에서 양계산물 소비촉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충북도지회
양계산물 소비행사 실시**

충북도지회(지회장 이준동)는 지난 11월 31일 무항생제 닭고기 시식회를 개최한데 이어 21일 청주중앙공원에서 양계산물 소비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소비자들에게는 닭고기 300인분과 계란 등이 무료로 배부됐으며 양계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천채란 · 육계지부
양계산물 안전성 소비행사**

이천채란(지부장 정광면) · 육계지부(지부장 이을윤)는 지난 19일 이천시지부 회의장에서 이천시 의사협회 · 시청 · 농협 · 축협 등 4개 단체와 합동으로 닭고기 · 계란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삼계탕 100인분, 치킨, 삶은 계란 1,000개를 준비하여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에 따라 위축된 양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자는 의미를 더했다.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 11/22~현재 AI 방역대책위원회의
- 12/5 역학조사위원회
- 12/6 제3회 종계DB 추진협의회
- 12/7 2006년도 종계종란수입조절위원회
- 12/8 제3회 검정위원회
- 12/11 가축방역협의회
- 12/12 AI극복을 위한 가금산물 소비촉진행사
- 12/13 조류인플루엔자 관리 및 대책 심포지엄
- 12/15 KBS 9시 뉴스 인터뷰
- 12/20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
- 12/21 2007 신년 축산국장-생산자단체 초청 조찬 간담회
- 12/22 농산물 소비자 유통 활성화 방안 간담회
- 12/27 제 3차 이사회
- 12/27 제4차 축단협 대표자회의
- 12/28 2007 축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거제시지부

닭고기·계란은 안전 먹거리 홍보



▲양계산물 홍보하는 경남지회 황수연 지회장과 김영근 감사를 비롯한 회원과 임직원



▲결의문 낭독(김수용 거제축협 조합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급감한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대한양계협회, 시·군지부, 지역 관계기관들이 공조하여 전국 곳곳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12일 대한양계협회 거제시 지부(지부장 이장근)는 거제시군, 거제축협 등 지역관계자들과 공조하여 지난 12일 거제실내체육관 광장에서 3,500여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닭고기·계란 소비홍보와 시사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소비홍보를 위해 거제시 지부와 지역 양계인 외에도 김수용 거제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거제시 축협과 공무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비홍보에 적극 동참했다.

김수용 조합장은 “금일 이곳에서는 거제시 축산인과 고객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거제시 전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가운데 어려운 양계농가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번 소비촉진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닭고기·계란이 안전한 먹거리이며 영양만점 건강식품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자”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곧 이어 참석한 양계농가들은 김수용 조합장의 선장으로 결의문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를 빠른 시일내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 닭고기·계란을 깨끗하고 안전한 건강식품임을 알리고 소비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어려움에 처한 양계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비촉진에 앞장설 것 등을 결의했다.

이미 전남 나주(15일)와 군산(10일)에서 소비촉진 행사가 열린데 이어, 경남 고성(16일), 김해(22일)에서도 양계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이어졌다.